

이상돈의 ‘바른 소리’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공천 룰 제정을 두고 각기 당내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그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친박계의 반대에 부착해서 좌초할 위기에 처했고,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 룰과 인적 쇄신 방안을 두고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대표가 모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지만 공천 룰을 둘러싼 내홍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라서 두 사람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단순히 하게 한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국면적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총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그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겠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통한 쇄신을 카드로 꺼냈다. 혁신위가 시작도 하지 전에 조국 교수는 호남 지역 다선의원 퇴출과 의원 평가를 통한 공천 배제를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조국 교수가 핵심 멤버로 참여한 혁신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 룰을 내놓았는데, 현역의원 20%를 여론조사 등 평가를 통한 상황식 공천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숫자를 전라공천 할 수 있도록 해서 '물갈이'와 신진 영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한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산 지역 출마를, 그리고 몇몇 다른 중진에게는 열세 지역구 출마를 권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룰은 상황식 공천으로는 현역의원을 교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현역의원을 여론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국회의원을 이런저런 기준을 적용해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실제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구 의원 중 하위 25%를 컷 오프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당시에 쇄신공천의 한 형태로 알려졌다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안다면 놀랄 것이다. '25% 컷 오프'는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밀어붙였고 의원총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런 굴욕적인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서울 지역의 친이 의원들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부산 지역의 친박 의원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는데, 특히 김무성 의원이 탈락해서 충격을 주었다. 컷 오프가 기대 밖의 결과를 초래하자 수도권 친이 의원들을 전라공천으로 또다시 걸러내야만 했는데, 그러고도 공천 파동이 없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확실한 미래권력이었기 때문이

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현재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각기 공천 룰을 두고 진통을 겪는 것은 김 대표나 문 대표가 미래권력이 아닐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두 대표에 대한 비판세력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윤상현 의원 말대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면 물갈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새정치연합의 사정은 한층 복잡하다. 박준영 전 지사와 정청배 의원의 창당선언과 박주선 의원의 탈당으로 호남에선 새정치연합으로부터의 이탈이 시작됐으며, 사실상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중진들이 혁신위원회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진통은 선거 때마다 있었지만 이번은 그것이 대권 주자인 정당 대표의 리더십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두 대표의 공천 룰 전쟁으로 촉발된 2016년 총선 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연속이 될 것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공천 룰 전쟁’

社 說

유통업체 사회공헌 구멍가게보다 못해서야

광주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회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대형 마트와 아울렛 12개 업체가 벌어들인 매출은 총 6933억 원(마트 5567억 원, 아울렛 13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형 마트와 아울렛의 매출액에서 기부금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모두 1681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사회기부금은 고작 300만 원(0.0018%)에 불과했다. 롯데 마트는 총매출이 2322억 원인 반면 기부금은 0.002%인 5200만 원에 그쳤다. 총매출 1366억 원을 기록한 롯데 아울렛은 기부금으로 1억 1400만 원(0.08%)을 내놓았고 이마트는 매출액 1563억 원 중 2억6100만 원(0.17%)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은 대기압다운 규모이면서 사회

공헌 활동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하지 않는 대형 마트와 유통업체들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굵지 못하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푼돈 던져 주듯 수백만 원만 내놓는 것은 지역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문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골 강조해 온 '지역 상생'과도 정면배치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추구를 통하여 남는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려면 그 성과가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유통업체들이 지역상풍 및 지역경제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도 대형 업체들에 대해 점차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금 체불, 제수 비용만이라도 질 수 있도록

추석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법 명절 분위기가 감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울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손으로 추석 설 걱정에 수심이 가득할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광주에서는 임금 체불 신고 4013건에 액수는 3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792건, 194억 원의 체불임금이 접수됐다.

전국에서는 19만 명이 8539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되게 일을 하고도 한 사람당 449만 원 꼴로 땀 흘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검찰까지 나서 추석 전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힘을 써 왔다. 각 기관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 측을 설득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돈을 숨겨 놓고 모른 체하거나 고의로 지금을 회피하는 악덕업주는 사법처리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체불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지만 사업주가 이행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근로자이거나 여성,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국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우울한 한가위를 보내는 이들이 없도록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특히 추석 전에 근로자들이 제수 비용이라도 손에 질 수 있도록 업체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김 영 철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내 인생의 동반자는 ()이다

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제겐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 신부는 그런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누이로서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지역의 신부님들과 연수차 흑산도에 갔습니다. 둘째 날 홍도관광이 계획되어 모두에게 “표는 끊었으니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착장으로 오세요”라고 공지를 했는데 막상 선착장에 모이고 보니, 아뵘새! 정작 나 자신이 신분증을 깜빡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방에 다녀와야겠습니다”하며 냅다 뛰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는지 땀물 비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레도 모두들 “어서 다녀오세요”라며 받아주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꽤 오래된 유명한 복요리집이 있습니다. 점심때면 가끔 신자들과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친절합니다. 특히 연세 지긋하신 대표 주방장님은 식당에 들어서면 경쾌한 목소리로 반기십니다. “어서 오세요” 또 식사 중간에 방문을 열고 꼭 한마디를 잊지 않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저는 “네,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하며 답

합니다. 정말 정겨운 순간입니다.

어느 날,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다 헤진 가방을 메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목을 긁어 없애서 여관방이라도 얻어 지내려 하니 돈 10만원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너무 선한 인상이었고 집짓 평화로워 보이니까 지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돈을 쥐어주고 그 여인의 앞날이 좀 더 편안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며칠 전, 이장호 영화감독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약속시간이 다 됐을 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어머님의 병세가 위독하니 지금 병원을 함께 가주시자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당 신자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데’하며 머뭇거리는데,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가 지금 꼭 신부님을 모셔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몸부림치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제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도(병자성사)와 안수를 해드린 내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때까지 몇 번이고 그분 머리에 손을 얹어 평화로이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뛰다시피 해서 이장호 감독과의 약속장소로 향했습니다. 좀 늦었노라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몇 번 만났던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서로 즐겁고 유쾌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장호 감독은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와 친구로 오랜 우정을 쌓고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70여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삶이 참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듯 나의 삶에는 나의 결점과 허점마저도 눈감아주는 사람들, 정다운 말씨와 마음 씀씀이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때론 내 마음에 찼던 정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즐겁고 유쾌한 만남을 통해 내가 성장하도록 해 준 사람 등, 내 삶에 동반자가 되어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나는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기 고



이 병 구 광주지방보훈청장

‘청렴’ 바르고 곧은 마음의 실천

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청렴의 덕’이 형성된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이 항상 바르고 곧은 마음을 토대로 행동하는지 여부, 즉 청렴의 문제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이익’과 ‘사회적 공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렴을 꾸준히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등의 자기 위면과 합리화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청렴의 실천은 끊임없이 올바른 행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행위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도 같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원리가 바로 ‘정의’(justice)다. 정의는 항상 바르고 곧은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원하게 하며 실천하게 하는 원리이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정직’(正直)과 ‘공정’(公正)이다. ‘정직’이 개별적인 행위에 국한된 것이라면, ‘공정’은 이러

한 정직한 행위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사회적 행위들로 구성된다.

또한, ‘정직’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천을 필요로 한다. 즉 잘못을 지적받거나 지적하는 행동이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정직을 실현하려는 순수함만 있다면 오히려 반복되는 잘못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두 번째는 ‘절제’와 ‘배려’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바르고 곧은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를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나의 이기적인 욕구가 절제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악습을 지킴으로써 내가 손해를 본다면 과연 악습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또는, 대중 악습은 했지만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악습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악습을 지킬 것인가? 하는 작은 갈등 상황 속에서, 잠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바르고 곧은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함으로써 ‘절제’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악습’은 상대방을 위한 ‘청렴의 덕’을 실현함에 있어 매우 기초적인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술한 목민심서 율기(律紀)편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공직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정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라고 하며, 관리가 청렴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는 사소한 선물과 조그마한 부정부위가 당장은 그리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 그런 행위들은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집단 및 사회의 부패로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의 영역을 벗어난 빛은 보지 못한다.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가지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물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귀 역시 가청주파수에서 벗어난 고주파·저주파 등은 듣지 못한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옛말이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후손들에게 득도 싶지다. 사람이 보고 듣는 고노길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라

화장(火葬)

행히도 만약의 일이 생긴다면, 매장을 해야 할지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도 대개 이 때쯤이다.

문제는 최절단 과학시대에 사는 지금의 문명인들도 ‘매장이냐 화장이냐’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매장을 하러니 ‘지금

은 명당도 거의 찾을 수 없는 데다, 혹 시라도 음택을 잘못 선택하면 후손이 불행해진다’는 지관들의 협박 아닌 협박이 깨무적이다. ‘유해를 불에 태우면

후손들에게 득도 싶지도 않고 깨끗하다’는 화장이 좋아 보여도 “돌아가신 이의 영혼

이 갈 곳 없어 해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들고, ‘불효자식’이라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도 마음에 걸린다. 보이지만 알지못한 영혼이 있을 수도, 가 보진 못했지만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외면하기 쉽지 않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화장을 선택한 비율이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광주 지역 화장률은 75.3%, 전남은 65.3%였다. 화장이 대세인 셈이지만, 죽은 후를 모르니 무작정 따르기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